

과거. 친숙함. 모국어. 오래된 버릇. 규범들이라는 짐속에서... 보다. 질문하다. 발견하다. 깜짝 놀라다. 숙달하다. 오해하다. 재인식하다. 관련성을 만든다. 새로운 습관을 키워나간다. 소통하는 것을 익히다. 서서히 이해하다. 노동하다. 살아가다. 일상이 되다... 그들의 시 연작 중에서 "낮선 나라에서 잠이 깨어"('시' 연작 中 인용)는 이런 좌표계를 새롭게 만들어나간다는 뜻일 것이다.

우리는 언어로서 현실을 이해하고 글로 그것들을 전달한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경험을 위해 "모험가의 눈으로"('시' 연작 中 인용)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다. 26 개의 화초의 식물학명 철자를 골라서 '초록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알파벳을 만들어 내고, 모든 식물은 그림으로 환원된다. 그리고 이 문자들과 쓰여진 편지와 식물들의 가족사진이 친구들에게 보내진다. 낮선 나라에서의 소식들을 전해 준다.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란 보고도 파악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읽을 수 없는 글자 앞에 선다는 것은 눈뜬 장님이 되는 것이다. 최승훈과 박선민이 만든 Lightobject는 볼 수 있고 아름답게 받아 들여 지지만 언어적인 의미는 손으로만 읽을 수 있다. 즉, 그것은 점자로 만들어져서 시각장애자만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파악되는 현실의 지각체계는 절전전구로 제작된 이 점자 전등의 텍스트인 'Here isn't my home(이곳은 나의 집이 아니다)', 'Let me be vague(나를 혼란스럽게 내버려 뒀)', 'It's my shadow(이것은 나의 그림자)', 'We dance on a rope(우리는 외줄타기를 한다)', 'The end is beginning(끝이 시작되고 있다)'을 향해 "항상 새로운 빛을 비출 것이다"('시' 연작 中 인용).

또는... 신문을 해독하고, 머릿기사와 사진들을 골라서 의미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들은 일상적인 정보의 습득과정을 반영하는데, 그 안에는 그로테스크하고 부조리하고 코믹한 머릿기사와 사진들로 뒤덮여있다. 그리고 이 "알수 없는 어떤것"('시' 연작 中 인용)은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낸다. 실내나 건물의 외벽에 길게 걸려있는, 다양한 신문에서 선택된 사진과 머릿기사들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포스터는 "행간에 숨겨진 숨은 뜻"('시' 연작 中 인용)을 찾는 '일상의 시'가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적 환희 없이"('시' 연작 中 인용) 시각적인 요소로 제시된다.

그리고... 실제의 척도에 의문을 가지고 비례를 뒤바꾼다. 일반적인 관점이란 없다. 단지 그때그때의 시각이 있을 뿐이다. 아이펠(Eifel) 지역의 크로넨부르크(Kronenburg)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 시리즈는 "전혀 알지 못했던 풍경으로의 초대"('시' 연작 中 인용)이다. 이 평범한 자연보호구역에서 개구리 시점(바닥에 붙어서 보는 낮은 시점)으로 장난감, 곤충, 달팽이 등을 탐색한다. 백조들은 물웅덩이로 된 호수에서 수영하고, 딱정벌레는 여우를, 거미는 양을, 달팽이는 소와 노새를, 사슴은 무당벌레를 만난다. 무성한 이끼들 속에서 사슴과 사냥꾼과 개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사냥터 장면, 그리고 한 가족이 삭아버린 나무벤치의 나무결 사이로 산책을 한다. 마지막으로 노새, 양, 사슴, 여우, 소, 개 등의 아주 작은 장난감 인형들의 가족사진. 역할 바꾸기와 관점 바꾸기를 통해서 이 사진속 세상은 "광기와 현실사이에서"('시' 연작 中 인용) 하나의 현실가능한 세상으로 뒤바뀐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의 개체. 비둘기는 성스러운 동물. 모두가 서로 다르고, 다 똑같은 도시속의 삶. 수많은 집들. 수많은 자동차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비둘기들. 수많은 쓰레기들... 거리를 유지하고, 격리를 통해서만이 내밀함을 되찾을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 천대받는 이웃인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줌으로서 비둘기의 왕이 된다. 태고적의 로맨틱한 멜로디의 음표처럼 전선위에 앉아있는 그들은 여전히 "모든것은 하늘높이 향하는 오래된 영혼".('시' 연작 中 인용)이다. 또는 우리의 머리위에서 불타고 있는 전선위의 촛불처럼...소멸해 가는 시간. 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배설물들...즉, 하나의 삶처럼 "전진, 전진하라"- "앞으로 저 앞으로"('시' 연작 中 인용)

Dr. 수잔나 크레머 베름바흐(Dr. Susannah Cremer-Bermbach)